



전북 이야기

정읍 시립 박물관 '생활사 박물관'으로 기능 넓혀야

정 상 섭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지역 박물관은 그 지역 사람들의 역사와 문화를 역사적 공간에서 과거·현재·미래 세대를 연결해 주는 주된 통로다.

또한 긴 시간의 터널을 뚫고 현재의 보편타당한 전시물을 통해 세대들이 서로 만나 교감과 소통을 하는 곳이다. 나아가 과거를 통해 현재를 알고 미래를 예견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 살아있는 평생 교육 시설로서 역할을 한다.

정읍시립박물관은 2012년 6월에 정읍사(井邑詞), 상춘곡(賞春曲), 고현동 향약, 호남우도농악 등 정읍의 대표 문화자원을 보존하고, 문화 콘텐츠 및 문화상품 개발로 지역 문화 경쟁력 강화에 목적을 두고 세워졌다. 소도시에서 많은 노력을 들여 '소리문화'라는 차별화와 전문성을 갖춘 박물관으로 문학, 농악, 역사, 기획전시실로 운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시립박물관이 효율적 운영을 위한 노력에도 박물관으로써 콘텐츠가 너무 빈약하다는 아쉬움이 있다는 게 시민들과 관람자들의 중론이다. 그 이유가 뭘까? 한국사에서 정읍은 부여, 경주, 서울 같은 고도(古都)의 강령인 사료적 가치가 큰 유물이 많지 않은 태생(胎生)적 한계로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까지 정읍의 문화재가 충분한 조사와 발굴이 안 되었고 현 박물관의 수장고 부족으로 고부 은선리 고분군에서 출토된 금속유물마저 국립전주박물관에 보관된 탓도 있다.

따라서 이런 콘텐츠 부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비록 역사적 사료(史料) 가치는 좀 낮아도 호기심을 끌 수 있는 정읍만의 차별화된 콘텐츠가 필요하다. 여기에 군산 근대역사박물관과 고흥 분청사

기박물관처럼 정읍시립박물관도 특화된 정읍 생활사의 전시와 체험을 통해 교육과 즐거움을 주는 오감(五感) 만족 공간으로 콘텐츠를 더해가야 한다. 그 대안으로, 첫째, 현재 시립박물관의 문학실과 농악실의 전시는 중심센터로서 개괄적 기능만 남기고, 상세한 전문적 기능은 향후 세우질 '정읍문학관'과 '정읍무형문화복합전시교육관'으로 이관시켜야 한다.

둘째, '조선왕조실록실(朝鮮王朝實錄室)'을 만들어야 한다. 64쪽짜리나 되는 방대한 조선왕조실록과 태조 어진(御眞)이 전주 경기전에서 내장사 용굴, 은적암, 비래암 까지 옮겨져 오늘날까지 보존되는

모습 코너, 세시풍속 모습 코너, 1960~70년대 학교생활 모습 코너, 소박한 서민생활이나 장날 모습 코너, 농경생활과 민속놀이 모습 코너 등 다양할 것이다.

나아가 놀이를 통해 흥미를 끌고 추억어린 정답도 나누며, 정읍문화의 이해와 지식을 넓히는 훌륭한 홍보의 장이자 교육장소가 되게 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코너별로 기념사진도 찍고, 카페테리아나 주막 같은 휴게시설에서 지역 특산물로 만든 떡과 마실 것과, 지역 상징물로 만든 복제품과 기념품 등도 판매해야 한다.

나아가 인근 미술관 등 문화시설까지 연계함으로써 관광객들로부터 종합입장료를 받아 시설 운영비도 충당해야 한다. 그리하여 생활 문화 콘텐츠의 기능이 넓어진 '정읍 생활사 박물관'은 문화와 경제가 유기적 관계를 이루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추속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케 해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정읍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셋째, 보천교(普天教), 증산교(甞山教), 미륵불교(彌勒佛敎), 무극대도(無極大道) 등 '민족종교실(民族宗敎室)'을 만들어야 한다. 얼마 전 이들 민족종교들과 관련된 기획특별전을 통해서 시민들의 큰 반향으로 효과를 입증하기도 했다. 또한 근대 한국 정치사에 큰 영향을 끼친 민족종교실은 종교박물관에 버금가는 특색있는 전시실이 될 것이다.

넷째, 정읍의 풍류 문화와 연결된 가양주(家釀酒), 특화산업과 관련된 쌍화차, 떡, 직물 등을 체험하는 '민속산업실(民俗産業室)'을 만들어야 한다. 이 분야는 전

문가나 지역 향토사학자들의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있고, 지역문화 확장과 특산물의 홍보 및 판매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섯째, '정읍문화체험실(井邑文化體驗室)'을 만들어야 한다. 이곳은 정읍의 자연, 주거 환경, 정읍 특유의 민속행사 등에서 소재를 찾아 호기심을 끌고 체험을 통한 흥미 및 교육적 효과로 다시 찾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일제강점기를 벗어난 전후로 근대에 이르기까지 정읍 사람들의 생활에 대해 타임머신(Time Machine)을 타고 추억여행을 하는 코너들이 되어야 한다. 예컨대 전통혼례 모습 코너, 세시풍속 모습 코너, 1960~70년대 학교생활 모습 코너, 소박한 서민생활이나 장날 모습 코너, 농경생활과 민속놀이 모습 코너 등 다양할 것이다.

나아가 놀이를 통해 흥미를 끌고 추억어린 정답도 나누며, 정읍문화의 이해와 지식을 넓히는 훌륭한 홍보의 장이자 교육장소가 되게 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코너별로 기념사진도 찍고, 카페테리아나 주막 같은 휴게시설에서 지역 특산물로 만든 떡과 마실 것과, 지역 상징물로 만든 복제품과 기념품 등도 판매해야 한다.

나아가 인근 미술관 등 문화시설까지 연계함으로써 관광객들로부터 종합입장료를 받아 시설 운영비도 충당해야 한다. 그리하여 생활 문화 콘텐츠의 기능이 넓어진 '정읍 생활사 박물관'은 문화와 경제가 유기적 관계를 이루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추속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케 해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정읍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다섯째, '정읍문화체험실(井邑文化體驗室)'을 만들어야 한다. 이곳은 정읍의 자연, 주거 환경, 정읍 특유의 민속행사 등에서 소재를 찾아 호기심을 끌고 체험을 통한 흥미 및 교육적 효과로 다시 찾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일제강점기를 벗어난 전후로 근대에 이르기까지 정읍 사람들의 생활에 대해 타임머신(Time Machine)을 타고 추억여행을 하는 코너들이 되어야 한다. 예컨대 전통혼례 모습 코너, 세시풍속 모습 코너, 1960~70년대 학교생활 모습 코너, 소박한 서민생활이나 장날 모습 코너, 농경생활과 민속놀이 모습 코너 등 다양할 것이다.

나아가 놀이를 통해 흥미를 끌고 추억어린 정답도 나누며, 정읍문화의 이해와 지식을 넓히는 훌륭한 홍보의 장이자 교육장소가 되게 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코너별로 기념사진도 찍고, 카페테리아나 주막 같은 휴게시설에서 지역 특산물로 만든 떡과 마실 것과, 지역 상징물로 만든 복제품과 기념품 등도 판매해야 한다.

나아가 인근 미술관 등 문화시설까지 연계함으로써 관광객들로부터 종합입장료를 받아 시설 운영비도 충당해야 한다. 그리하여 생활 문화 콘텐츠의 기능이 넓어진 '정읍 생활사 박물관'은 문화와 경제가 유기적 관계를 이루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추속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케 해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정읍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다섯째, '정읍문화체험실(井邑文化體驗室)'을 만들어야 한다. 이곳은 정읍의 자연, 주거 환경, 정읍 특유의 민속행사 등에서 소재를 찾아 호기심을 끌고 체험을 통한 흥미 및 교육적 효과로 다시 찾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일제강점기를 벗어난 전후로 근대에 이르기까지 정읍 사람들의 생활에 대해 타임머신(Time Machine)을 타고 추억여행을 하는 코너들이 되어야 한다. 예컨대 전통혼례 모습 코너, 세시풍속 모습 코너, 1960~70년대 학교생활 모습 코너, 소박한 서민생활이나 장날 모습 코너, 농경생활과 민속놀이 모습 코너 등 다양할 것이다.

나아가 놀이를 통해 흥미를 끌고 추억어린 정답도 나누며, 정읍문화의 이해와 지식을 넓히는 훌륭한 홍보의 장이자 교육장소가 되게 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코너별로 기념사진도 찍고, 카페테리아나 주막 같은 휴게시설에서 지역 특산물로 만든 떡과 마실 것과, 지역 상징물로 만든 복제품과 기념품 등도 판매해야 한다.

나아가 인근 미술관 등 문화시설까지 연계함으로써 관광객들로부터 종합입장료를 받아 시설 운영비도 충당해야 한다. 그리하여 생활 문화 콘텐츠의 기능이 넓어진 '정읍 생활사 박물관'은 문화와 경제가 유기적 관계를 이루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추속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케 해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정읍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다섯째, '정읍문화체험실(井邑文化體驗室)'을 만들어야 한다. 이곳은 정읍의 자연, 주거 환경, 정읍 특유의 민속행사 등에서 소재를 찾아 호기심을 끌고 체험을 통한 흥미 및 교육적 효과로 다시 찾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일제강점기를 벗어난 전후로 근대에 이르기까지 정읍 사람들의 생활에 대해 타임머신(Time Machine)을 타고 추억여행을 하는 코너들이 되어야 한다. 예컨대 전통혼례 모습 코너, 세시풍속 모습 코너, 1960~70년대 학교생활 모습 코너, 소박한 서민생활이나 장날 모습 코너, 농경생활과 민속놀이 모습 코너 등 다양할 것이다.

나아가 놀이를 통해 흥미를 끌고 추억어린 정답도 나누며, 정읍문화의 이해와 지식을 넓히는 훌륭한 홍보의 장이자 교육장소가 되게 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코너별로 기념사진도 찍고, 카페테리아나 주막 같은 휴게시설에서 지역 특산물로 만든 떡과 마실 것과, 지역 상징물로 만든 복제품과 기념품 등도 판매해야 한다.

나아가 인근 미술관 등 문화시설까지 연계함으로써 관광객들로부터 종합입장료를 받아 시설 운영비도 충당해야 한다. 그리하여 생활 문화 콘텐츠의 기능이 넓어진 '정읍 생활사 박물관'은 문화와 경제가 유기적 관계를 이루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추속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케 해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정읍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독자의 편지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 지키는 소방훈련



는 이미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후 일 때도 있어 안타까운 때가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불이 나면 화재를 진압하고 119에 신고와 동시에 사람을 대피시키며, 소화기나 소화전을 이용해 감싸고 있는 사람을 구조하고, 구조된 사람에 대한 심폐소생술 등을 실시하는 응급처치훈련, 불을 끄는 화재진압훈련 등이 있다.

이러한 훈련은 자위소방대 구성원 각자가 전체적인 훈련 흐름(화재진압-119신고 및 인명대피 유도)과 인명구조-응급처치-화재진압)를 알고 자기의 역할과 임무를 숙지하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체득하는 훈련이 되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과 더불어 비대면 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 소방훈련도 예외가 아니어서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시청각자료를 통한 소방교육훈련이나 소수의 인원만 참여해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별도로 주간-야간-휴일 등 시간대별로 그리고 건물의 층별-구역별로 『소규모 초기대응팀』을 구성해 구성원의 역할과 임무를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이 좋다.

자위소방대의 소방훈련을 설계할 때에는 건물의 구조와 대피로, 소방대상물의 거주자 특성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시나리오를 작성하되 특히 인명대피유도와 인명구조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어 화기취급이 늘어나고 있다. 건물주 등 관계자는 실질적인 자위소방대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 화재로부터 건물의 손실들과 직원 및 거주자들을 보호하고 재산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김용일(익산소방서 현장대응단 지휘조사팀장)

농번기 철 야간운행 각별히 조심해야

가을철 농번기는 농촌 지역의 경운기 사용 빈도가 높아지는 시기이다. 경운기는 농촌 지역에서 운송 수단, 교통수단으로 중요하게 이용되고 있지만,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운행 시 큰 주의가 요구되기도 한다.

경운기사고의 경우 커브 길이나 내리막길에서 차량 운전자가 순간적으로 저속 주행하는 경운기를 피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해가 진 야간에 차량이 경운기를 인지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한다. 특히 야간에는 차량 운전자의 경운기 인지가 어려워 운행을 하지 않아야 하지만, 농번기 시기에는 야간에도 운행이 빈번한 상황이다.

경운기는 사고발생 시 추락과 전복에 의한 깔림, 암사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어 사고 발생 시에는 사망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경운기 사고 예방을 위해서 경찰에서는 야간 반사지 부착, 태양열 경광등 등을 부착 시키며 야간 운행 자체 등 홍보 활동을 하고 있지만, 사고로부터 완전히 안전할 수는 없다.

사고로부터 안전할 수 있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운기를 운행하는 운전자 스스로가 경운기 사용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교통법규를 지키며

운행을 해야 한다. 경운기 운행 시 운전자는 적재함 뒤, 양 측면 모두 경광등 및 반사지를 부착하여 뒤에서 오는 차량이나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출 전 및 일몰 후인 야간에는 경운기 도로 주행을 하지 말아야 하고 좌석 옆이나 적재함에 동승자를 태우지 말아야 한다. 또한, 경운기 운전자가 차량 운전과 마찬가지로 대형 사고를 유발하는 음주 후 운행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농촌지역에서는 차량 운전자로 주의할 점이 있다. 경운기가 도로에서 주행 중이거나 내리막길, 커브길 주행 시에는 서행 운전하고 저속으로 주행하는 경운기를 무리하게 앞지르기해서는 안된다.

야간시간대의 경우, 주행하는 경운기 식별이 어려워 추돌사고 발생 시에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농촌 지역 야간 운전 시 차량운전자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서행하여 운전해야 한다.

사고는 예고가 없다. 경운기 및 차량 운전자는 '안전 운전'을 항상 유념하고 운전을 하여야 사고로부터 자신과 타인을 지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하경진(장수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독자의 창

스쿨존 불법 주정차 금지, 적극적인 동참 필요

아침 등원시간, 유치원 및 초등학교 앞에 길게 늘어선 학부모들의 차량 안에서 아이들이 내리는 광경을 심심치 않게 접해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은 지난 21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으로 인해 단속대상이 되었다. 스쿨존 전역이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이다.

주정차 중인 차 사이로 어린이들이 움직이다 차치는 사고를 막자는 취지에서 개정된 법안인데, 이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도 주정차가 가능한 구간이 있었으나 개정 도로교통법의 시행으로 인해 학교와 거리가 멀거나 주정차 금지구역인

을 알리는 황색실선이 없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는 모두 불법이다.

'잠깐 내려주는 건데 뭐 어때' 라는 마음으로 스쿨존에서 자녀를 내려주다가 불법 주정차 행위가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 일반도로보다 3배 가량 높은 12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통학거리가 멀거나 학부모의 도움이 필요해 차를 타고 다니는 아이들을 위해 안심 승하차존을 운영하는데, 사도 청장이 안전표지로 허용하는 구역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한해 어린이들의 승하차 목적의 주정차가 가능하다.

작년 3월 민식이법의 시행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에 대해 과한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법 개정이니만큼 경찰과 교육청, 자치단체는 긴밀한 협조를 통해 차량의 흐름에도 지장을 주지 않고, 아이들의 안전에도 위협을 초래하지 않는 안전한 승하차존을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

동시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주정차 금지라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인식과 동참도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이 만들어질 것임을 명심하자.

/신혜지(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새전북신문 www.sjbnews.com		54916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28 새전북신문 BD	
발행·편집인 박명규	안내 / 063) 230-5700 광고 / 063) 230-5714	FAX / 063)231-8327 구독&독자서비스부 / 063) 230-5712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우순금	제보 사회부 / 063)230-5850 정치부 / 063)230-5821	경제부 / 063)230-5840 사진팀 / 063)230-5842	문화교육부 / 063)230-5818 자치행정부 / 063)230-5840

2000년 10월 25일 창간(등록일자 : 2000년 10월 23일) 등록번호 전북가-0004(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재보·투고 시호선상이나 일상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생각을 듣습니다. |홈페이지 sjbnews.com/커뮤니티/독자투고 게시판 |이메일 sjb222@gmail.com

창간 21주년 축하드립니다

K.B.Y.